

기업 이전투자에 따른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김지수¹⁾, 유이선²⁾, 배진원³⁾, 배지현⁴⁾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2)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3)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4) 한국은행 대구경북경제조사팀 과장

< 요약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고찰

II.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주요 특징

1. 지방이전 투자기업 식별
2. 지방이전투자의 최근 추이
3. 대구경북지역 이전투자기업의 특징
4. 대구경북 이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III. 지방이전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

1. 분석모형
2. 지방이전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

IV. 대구경북지역의 이전투자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시사점

1. 사후 관리 통한 안정적 착근 지원
2. 지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강화
3.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4. 지역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 중심의 투자 방향성 정립
5. 지역내 안정적 투자환경의 구축

참고문헌

〈 요약 〉

지방투자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지방투자 촉진 정책이 양적 확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대구경북지역은 이전투자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지역경제 성장률은 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성숙기를 지난 전통 제조업에 대한 산업위기 우려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이전투자에 따른 선순환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서 대구경북지역으로의 기업이전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기간인 2008-2020년 동안 식별된 지방이전투자 기업 중 대구경북지역으로의 이전투자 비중은 약 12%로, 강원이나 충청권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전기업 중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재이전기업의 비중은 대구경북지역이 강원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경권에서의 평균 활동기간은 약 2.6년으로, 재이전하는 기업들의 약 78%가 대구경북지역으로 이전해 온 지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재이전하는 기업 중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경권으로 이전투자한 기업들이 투자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착근하여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재이전을 하지 않고 투자지역내에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는 착근기업의 경우, 이전 후 성장성과 혁신성이 소폭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정보통신업에서 이전 후 성장성과 혁신성이 모두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전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투자지역내 안정적인 착근을 전제로 이전기업의 성장성과 혁신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전투자기업이 투자지역내 토착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을 전제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이전투자기업이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지역내에서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는 이전투자기업은 동일 산업에 속한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 기업의 유입으로 시장잠식과 인력 유출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내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은 이러한 부정적 효과에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흡수역량이 높은 업종과 이전투자가 활발한 업종 간 미스매치로 인해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연구개발분야가 유사한 이전투자기업으로부터의 지식과급효과는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지역내에서 연구개발투자나 고용이 활발한 투자기업일수록 지식과급효과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기업이 이전지역내에서 연구개발이나 고용활동을 활발히 하는 과정에서 기술 분야가 유사한 지역기업과의 관계 형성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며 이는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지역 이전투자기업의 주요 특징과 그에 따른 지역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전기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전기업의 안정적 착근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의 강화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전 직후 단기간 내 역외이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전 직후 자금확보와 인력수급, R&D 투자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내 안정적인 착근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투자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합한 인력풀의 양성과 매칭지원, 기업특성 및 업종별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등을 주요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전투자 기업의 기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협력시스템으로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이전기업과 지역기업간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이다. 이전투자를 통한 지식과급효과의 제고 및 투자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을 비롯한 역량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 중심의 투자 중심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지역 주력산업이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 중심의 투자유치와 전후방 산업의 육성 또한 병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종합하여 입지, 자본, 인력,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여건을 포괄하는 지역의 안정적 투자환경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지방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업이전 투자는 생산요소 재분배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지방이전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내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되었으며, 광주·경남 등 10여개 지역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통해 지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부터 규제 특례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투자정책의 효과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²⁾. 해당 연구들은 양적 확대 중심의 지방투자는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기업의 유치와 정책 개선을 통해 지방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우려는 대구경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대구경북지역의 이전투자 기업 수는 201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같은 시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부진을 보이고 있다³⁾. 이는 투자에 따른 선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내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장·혁신기업의 이전투자 비중이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 중 4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⁴⁾. 또한 기계, 섬유 등 전통 주력제조업에 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성숙기를 지난 전통 제조업에 대한 산업위기 우려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역량 있는 기업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루어진 지방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투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윤석열 정부에서는 120대 국정과제에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

2) 윤형호·김성준, 2006; 변필성 외, 2009; 김지수 외, 2021 등

3)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 중 대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5년 6.1%에서 2016-2020년 기간에는 10.1%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대구경북지역 평균 GRDP 증감율은 2.64%에서 0.02%로 감소

4) 김지수 외(202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지방투자 중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투자에 초점을 둔다.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투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시행된 2004년부터 다루어진 주요 정책 대상이자, 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건수의 약 50%를 차지⁵⁾하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형태이다⁶⁾.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이 비수도권 내 지역토착기업에 파급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이 기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이전투자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전국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차지하는 위상 및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다.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투자에 대한 최근 추이와 특징을 전국 및 대경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이전 특징과 이전 전후의 경영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경권 이전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3장에서는 지방이전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성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다. 지방이전 투자기업이 투자지 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적·기업적 요인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현황 분석 및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구경북지역의 지방투자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고찰

가. 선행연구의 고찰

지방 이전투자는 수도권 역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외생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경제적 관점에서 강조되어 왔다(이유진 외, 2020; 김지수 외, 2021). 수도권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내 생산요소의 물리적 이전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역의 생산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윤형호·김성준, 2006) 지역경제적 관점에서 지방투자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 이전투자는 지역경제와의 연계·확대를 전제로 해당 지역에 일자리·지식·기술의 확산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 제고와

5) 2004년~2020년까지 누적 기준임(김지수 외, 2021)

6)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비수도권 내 신증설 및 유턴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등 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Driffield, 2004). 다만, 역외에서 유치한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기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해당지역의 흡수역량이나 지역내 전후방 연계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Blomström et al., 2001; Driffield, 2004). 따라서 지역기업의 충분한 흡수역량을 전제한 상태에서 지역내 파급력이 높은 고성장·혁신기업의 유치가 수반될 경우 지방이전 투자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전투자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기술창업(박현정·최문중, 2021)이나 기술혁신(김병태, 2021; 김병태, 2022), 지역내 기업의 투자현황(한국은행, 2018)과 생산성(한국은행, 2022) 등으로 역외 이전기업보다는 지역내 기업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서 대구경북지역내 주력업종의 투자비용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국평균 대비 투자효율성과 R&D 투자가 저조함을 지적하였다(한국은행, 2018). 이러한 문제점은 대구경북지역을 이끌어 왔던 전자산업과 철강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IT·의료·바이오 등 지역이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은 아직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최재원 외, 2021). 더욱이, 대구경북지역내 자동차 부품, 금속 등의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한국은행, 2022) 대구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투자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본 연구의 차별성

현재까지 선행된 지방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용, 자본 등 지역내 생산요소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생산성 제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나 산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내 이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기업의 특성과 이전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기업이 지역기업의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내 이전투자와 지역내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정책, 지역산업 구조 및 주력산업, 지역내 투자여건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주요 특징

2장에서는 국내 지방이전투자의 전반적인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대구경북지역 이
전투자기업의 특성 및 이전 전후의 경영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이전 투자기업 식별

가. 논의의 대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
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의 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투자보조금(이하
지투보조금)’ 제도의 목적, 내용, 지원범위, 보조금 유형 등에 관한 내용이다⁷⁾. 지투
보조금 제도에서 주목하는 지방투자는 크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투자’와 ‘신증
설투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
였다.

나.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이
전 투자기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경북지역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의 공간 단위를 17개 광역시도로 설정하였
으며, 필요시 광역권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시
간적 범위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기업이전에 관한 정보는 2008년부터 구득이 가능하여 분석기간을 2008년부
터로 제한하였다.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식별은 김지수 외(2021)의 방법을 준용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는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본사 주소지 이력정보를 이용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주소지 이전이 발생한 기업을 지방이전 투자기업으로 식별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 데이터 및 식별방식을 적용하였다.

7) 지투보조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기
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지방이전투자의 최근 추이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8,267개 기업의 39,347건 이전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⁸⁾. 기업수와 이전사례건수를 구분한 이유는 분석기간동안 한 차례만 이전한 기업이 70.26%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2회 이상 이전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대 10회까지 이전한 기업도 존재하며 기업당 평균 이전횟수는 1.39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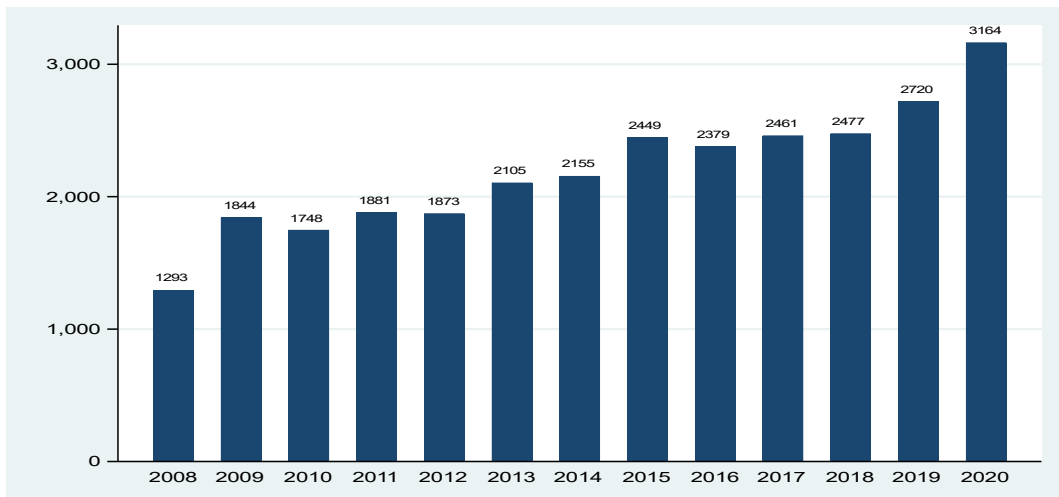
<표 1> 이전횟수별 이전기업 분포

이전횟수(회)	기업(개)	비중(%)
1	19,860	70.26
2	6,433	22.76
3회 이상	1,974	6.98
합	28,267	100.00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이전 사례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수도권에 입지했던 기업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 1,293건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08%의 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164건을 기록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지방이전사례 추이(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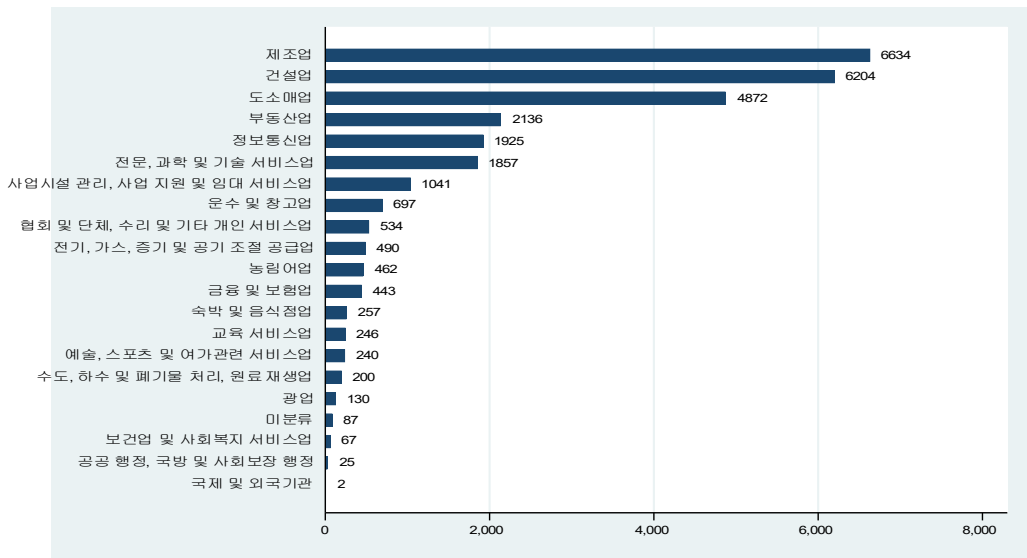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8)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서 기업이전이 처음 발생한 시기가 2008년임을 감안하여 2008년 이전에 휴폐업한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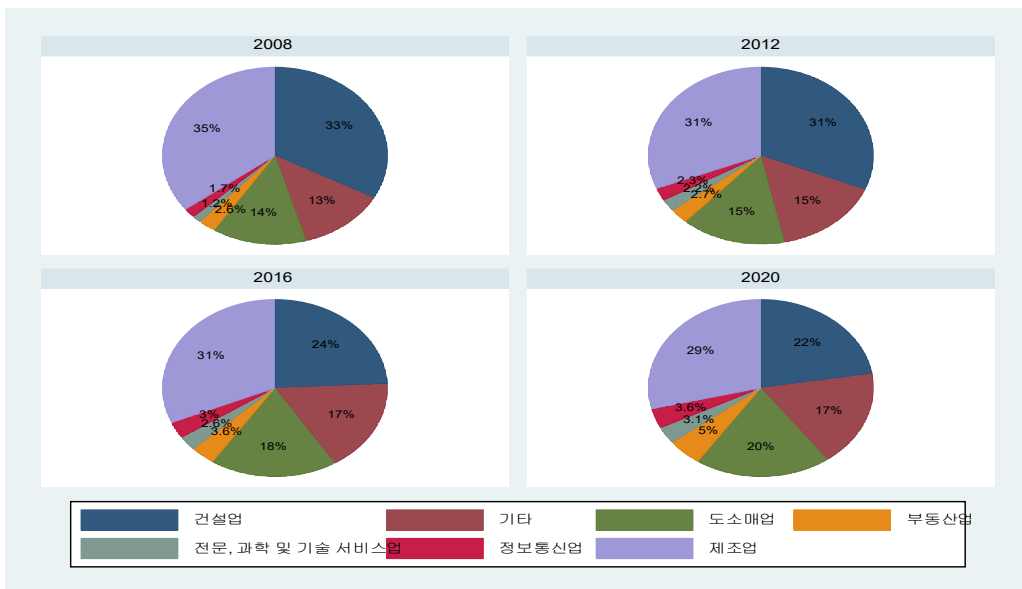
업종별(KSIC 대분류) 지방이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23.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21.73%), 도소매업(17.07%), 부동산업(7.48%), 정보통신업(6.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이전 기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업종별 지방이전사례 분포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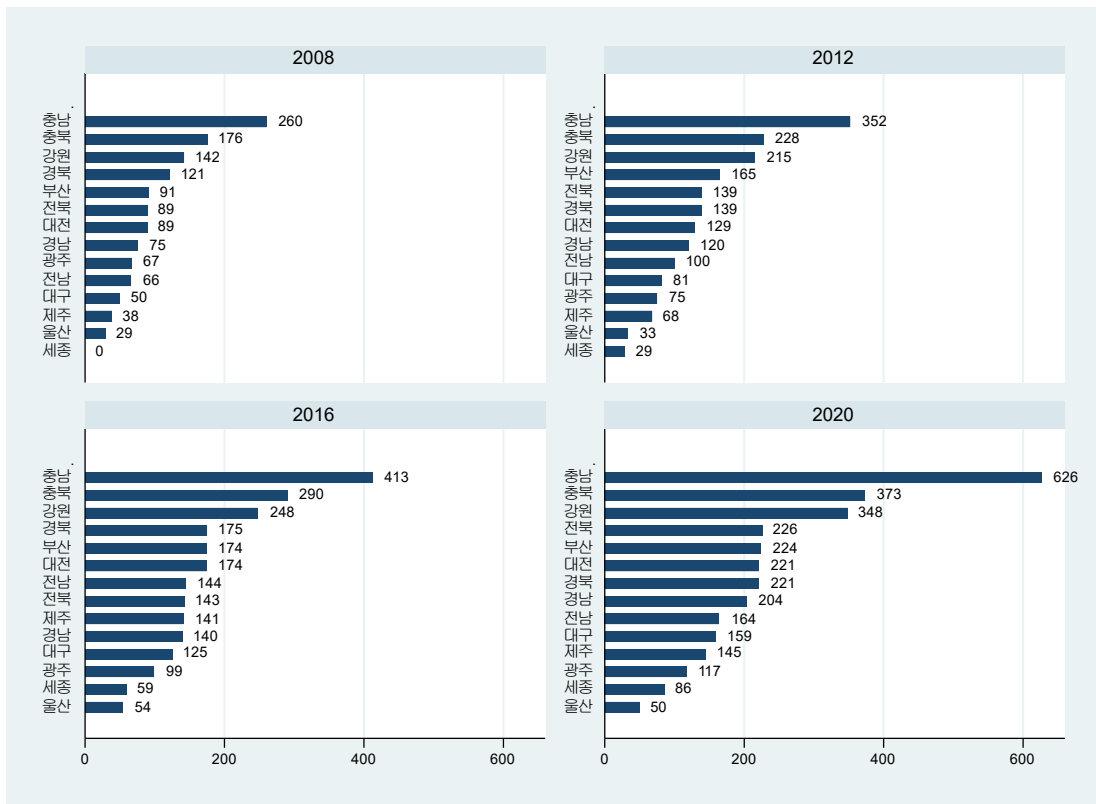
<그림 3> 업종별 지방이전사례 분포의 변화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별(광역시도별)로 지방이전 투자를 살펴보면 분석기간동안 수도권에서 충남으로의 이전사례가 전체의 18.26%에 해당하는 5,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충북(3,512건)과 강원(3,214건)이 이전순위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세 개 지역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주요 기업 159개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충청권(51.4%)으로 나타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⁹⁾. 즉 기업은 수도권보다 낮은 입지 비용과 부수적인 정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가까워 인력확보에 유리한 지역으로의 이전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위가 다소 변화하긴 하지만 상위권 세 개 지역을 제외하고 경북, 부산, 전북, 대전 등이 중위권 그룹을, 나머지 지역이 이전순위 하위권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 광역시도별 지방이전사례 분포 및 변화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9) “수도권 기업 29%, 5년내 지방 이전 혹은 신·중설 투자 고려”, 종합무역뉴스, 한국무역협회, 23.5.12.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SSIONID_KITA=3DB2936CDBAA1056BAFDF99939B67B88.Hyper?pageIndex=1&nIndex=75168&sSiteid=1)

한편 지방이전 투자는 기업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분석기간동안 중소기업(8,304건) 및 소상공인(7,471건)의 지방이전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견기업(214건) 및 대기업(85건)의 이전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에서 기업규모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판단이 제외된 경우도 많아 기업규모에 따른 이전 특성 분석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기간동안 이전횟수가 2회 이상인 기업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업 중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재이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재이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던 기업 중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지, 왜 해당 지역에 착근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을 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이전 투자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재이전기업 분석에 있어 지역구분은 광역권 기준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대경권으로 이전했던 기업이 대경권을 제외한 타 지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 강원)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재이전'으로 간주하였다. '재이전률'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전체 기업(총이전기업)대비 재이전한 기업의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전산업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평균 재이전률은 15.73%이며, 이전빈도가 높은 일부산업(건설 및 부동산업)을 제외하였을 때 재이전률은 이보다 다소 낮은 14.47%를 보인다. 한편 재이전률은 전산업이나 일부산업을 제외한 경우 모두 강원이 가장 높고, 대경권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의 재이전률이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전기업의 업종, 재이전 지역, 재이전까지의 소요기간(처음 이전한 지역에서의 활동기간) 등 재이전기업의 특성은 다음절에서 대경권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논의한다.

<표 2> 권역별 재이전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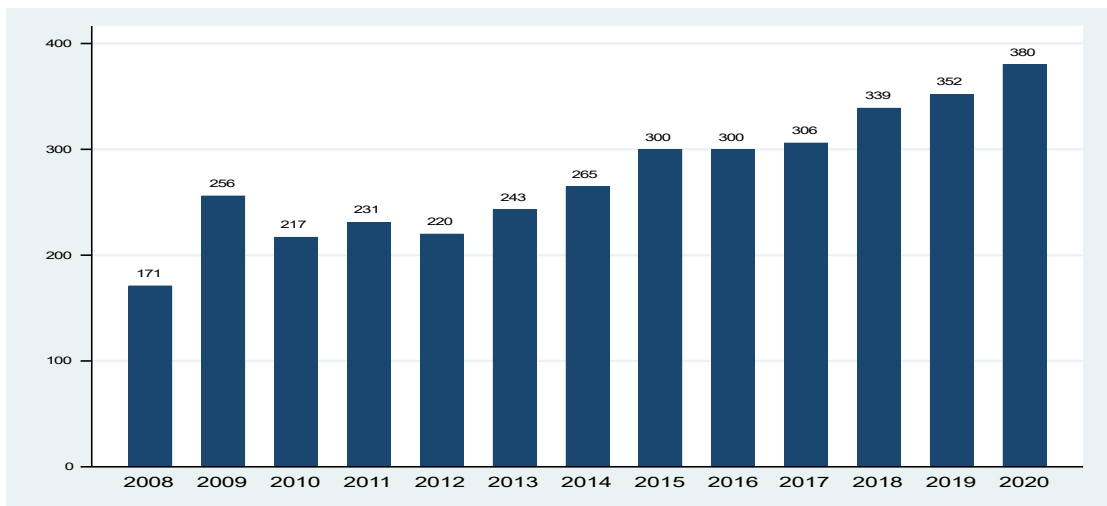
	총 이전기업(개)	재이전기업(개)	재이전률 (전산업, %)	재이전률 (건설·부동산업제외, %)
강원권	3,193	550	17.23	15.21
대경권	3,563	592	16.62	14.70
충청권	11,129	1,720	15.46	14.20
제주권	1,191	183	15.37	14.53
호남권	4,767	717	15.04	13.63
동남권	4,547	666	14.65	14.57
평균			15.73	14.47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대구경북지역 이전투자기업의 특징

본 절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이전투자기업의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기간 내에 수도권에서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기업은 3,563개이며, 이전사례는 3,580건이다. 기업당 평균 이전횟수는 1.004회로 전국평균(1.39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대경권으로의 지방이전 사례는 2008년 171건을 기록한 이후 전국과 유사한 연평균 증가율인 1.07% 수준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여 2020년에는 380건의 이전사례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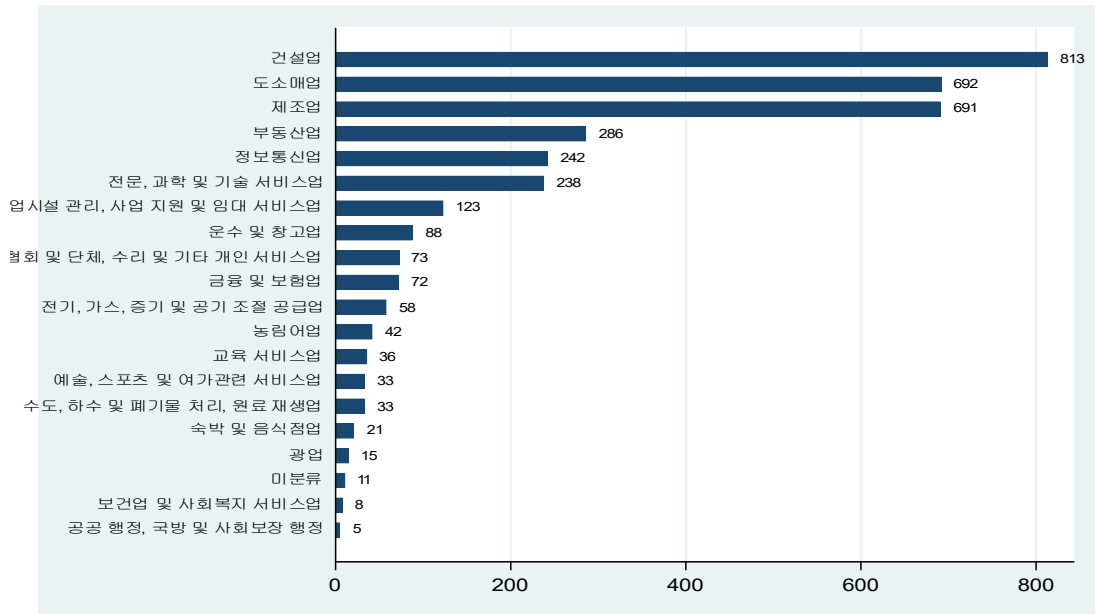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이전사례 추이(2008-2020, 대경권)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KSIC 대분류)로는 건설업(22.71%)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 도소매업(19.33%) 제조업(19.30%), 부동산업(7.99%), 정보통신업(6.7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65%) 등의 순으로 전국의 업종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조업의 비중은 전국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림 6> 업종별 이전사례 분포(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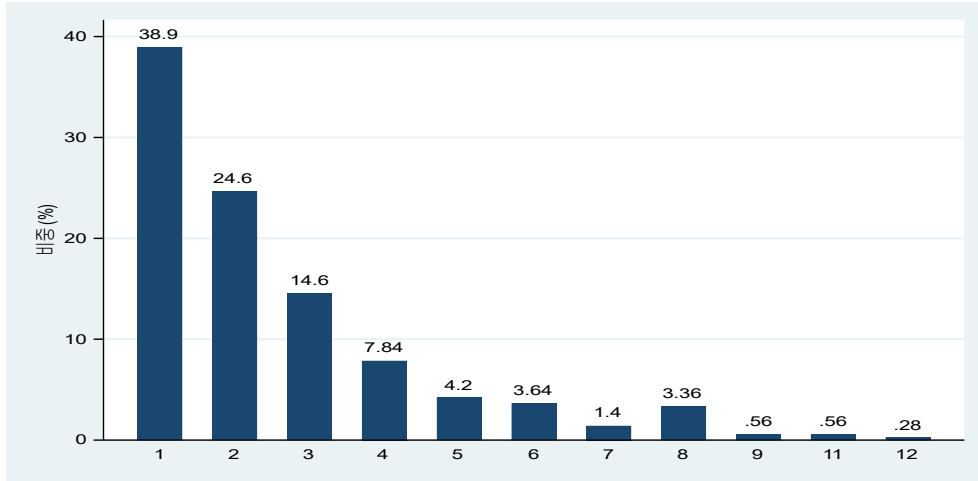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경권 이전기업의 재이전률은 전산업 기준 16.62%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7>은 대경권 재이전 기업의 활동기간별 분포로 대경권으로 이전투자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기까지의 기간을 보여준다. 재이전 기업의 약 40%가 1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며,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의 평균 활동기간은 약 2.6년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이전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경권으로 이전투자한 기업들이 투자지역내 안정적으로 착근하여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8>은 대경권 재이전 기업의 목적지별·업종별 분포를 나타낸다. 대경권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기업 중 수도권으로의 재이전하는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남권(12.1%), 충청권(10.9%), 강원(3.38%), 호남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경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다른 곳으로 재이전할 때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이전 사례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였으며, 그 외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⁰⁾. 다만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재이전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으로의 재이전 그룹에 비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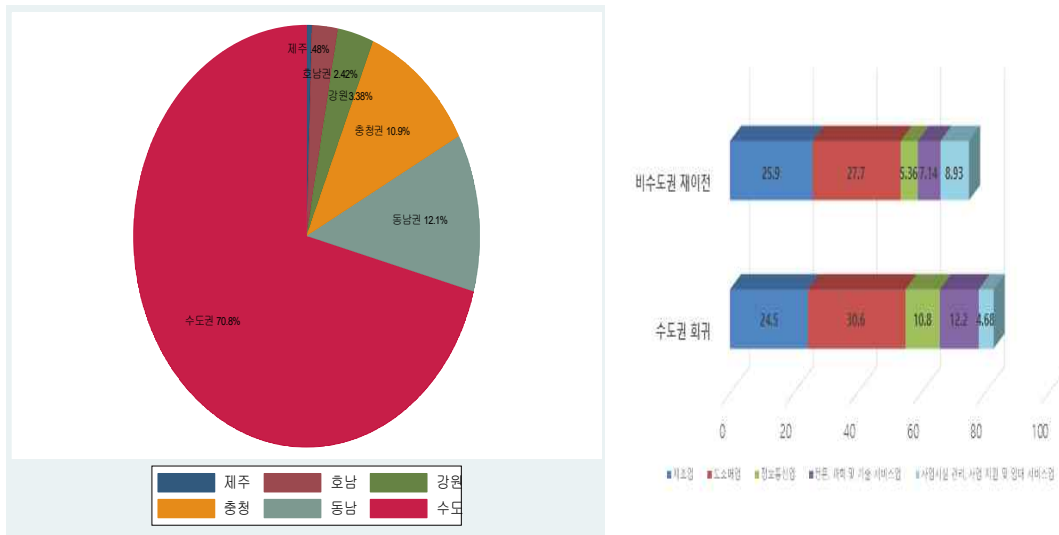
10) 재이전 사례의 업종별 분포는 건설업의 비중이 34.5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일정 에 따라 지역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업종 특성상 재이전이 빈번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업 역시 업종 특성 상 재이전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재이전기업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업종은 재이전 분석 시 제외하였다.

<그림 7> 대경권 재이전 기업의 활동기간별 분포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대경권 재이전 기업의 목적지별 · 업종별 분포
 <목적지별 분포>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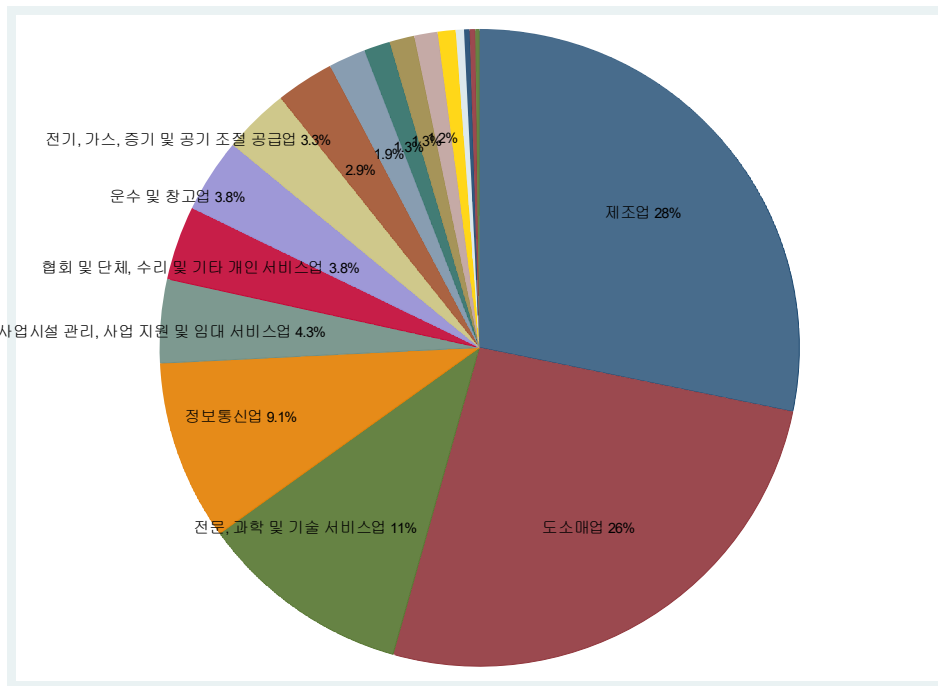
주 : 업종별 분포의 경우 그림의 가독성을 위해 주요 5개 업종만을 표기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대구경북 이전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본 절에서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대경권 이전투자 기업의 이전 전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성장성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같이 기업의 양적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혁신성은 기업의 혁신투입 및 산출 등 혁신활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혁신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구개발비 및 특허출원건수를 활용하였다.

경영성과 분석의 대상은 이전투자 기업 중 ‘착근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착근기업이란 ‘분석기간동안 해당 지역으로 이전 후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기준으로 휴업 및 폐업한 기업은 제외하였으며, 앞서 재이전 분석에서 제외하였던 이전이 빈번한 업종(건설 및 부동산업)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경권 착근기업은 1,435개로 이는 권역내 이전기업의 40.3%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28%로 가장 높으며, 이어 도소매업(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 정보통신업(9.1%) 등의 순이다.

<그림 9> 대경권 착근기업의 업종별 분포



자료 :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경영성과 분석은 착근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성 및 혁신성을 측정하는 지표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시 유의미한 관측치 확보를 위하여 전산업 대상의 분석과 착근기업 중 상대적으로 기업수가 많은 네가지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대상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비교대상 두 집단의 모분산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분산 T-test를 적용하였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 측정된 성장성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표 3>).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기업의 경우 대경권으로 이전 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영업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업종 구분 없이 전산업을 대상으로 이전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전기업의 경영성과에는 업종간 이질성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3> 대경권 이전기업의 경영성과-성장성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산업
매출액 (백만원)	이전후	25,700	3,958	57,100	61,100	149,000
	이전전	15,100	4,412	36,700	13,500	139,000
	차이(diff)	10,600	-456	20,300	47,600	10,300
	t-stat	3.7427***	-0.57	1.1	2.4735***	0.25
영업이익 (백만원)	이전후	789	300	503	2,705	12,600
	이전전	436	60	2,138	368	9,138
	차이(diff)	352	239	-1,635	2,336	3,474
	t-stat	1.8313**	1.7791**	-1.82	2.5635**	0.99

주 :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연구개발투자 및 특허출원건수로 측정된 혁신성의 경우 대경권으로의 이전 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업에서 그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표 4>). 정보통신업 기업은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건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이전 후 혁신활동의 투입 및 산출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특허출원건수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4> 대경권 이전기업의 경영성과-혁신성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산업
연구개발비 (백만원)	이전후	136.754	2.876	541.972	267.637	211.198
	이전전	47.579	0.56	297.212	53.218	81.853
	차이(diff)	89.174	2.316	244.76	214.419	129.345
	t-stat	7.0908***	3.12	1.09	2.7247***	3.41***
특허출원 건수	이전후	0.2788	0.0354	0.4107	0.8502	0.4509
	이전전	0.3249	0.0385	0.2731	0.2775	0.2292
	차이(diff)	-0.0461	-0.003	0.1376	0.5727	0.2217
	t-stat	-0.94	-0.33	1.6432*	2.148**	3.3068***

주 :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착근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영성과 분석을 종합해보면, 업종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보통신업에서의 일관적인 성과개선이 주목할 만하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이전 후의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이전 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다만 본 절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두 집단 간의 평균적인 변화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보다 면밀하게는 이전 전후의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성과분석이 요구된다.

III. 지방이전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

1. 분석모형

가. 기업 생산성 추정

지방이전 투자가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사용될 개별 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가정하에서 기업 i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Y_{r,i,t} = A_{r,i,t} L_{r,i,t}^{\beta_1} K_{r,i,t}^{\beta_2} M_{r,i,t}^{\beta_3} \tag{식 1}$$

$Y_{r,i,t}$ 는 r지역내 기업 i의 t기 생산량을 $L_{r,i,t}$ 와 $K_{r,i,t}$, $M_{r,i,t}$ 는 각각 노동과 자본, 원자재를 나타내는 생산투입요소로서 통상적으로 관측 가능한 부분이다. 한편 $A_{r,i,t}$

는 기업 i 의 총요소생산성(TFP)를 나타내며,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A_{ri,t}$ 를 추정하기 위해 위 식을 로그 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y_{ri,t} = \beta_0 + \beta_1 l_{ri,t} + \beta_2 k_{ri,t} + \beta_3 m_{ri,t} + v_{ri,t}, \quad h_{ri,t} = \ln H_{ri,t}; H = Y, K, L, M \quad (\text{식 2})$$

이때 총요소생산성 $\ln A_{ri,t} = \beta_0 + v_{ri,t}$ 로 표현되며, $v_{ri,t}$ 는 다시 기업 i 가 예측 가능한 부분($\omega_{ri,t}$)과 예측 불가능한 부분($\mu_{ri,t}$)으로 구분될 수 있다.

$$y_{ri,t} = \beta_0 + \beta_1 l_{ri,t} + \beta_2 k_{ri,t} + \beta_3 m_{ri,t} + \omega_{ri,t} + \mu_{ri,t} \quad (\text{식 3})$$

$\omega_{ri,t}$ 는 기업 i 에게는 관측 가능한 정보로서 기업 i 가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미 인지함으로써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즉, 생산 투입요소인 $l_{ri,t}, k_{ri,t}$ 등과 $\omega_{ri,t}$ 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식 3)을 OLS로 추정할 경우 생산투입요소 추정계수에 대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omega_{ri,t}$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효과로 가정하고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변수 차분 과정에서 측정오류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기업이 현재 혹은 과거의 생산성 충격을 감안하여 생산투입요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하여 기업의 행위와 결정을 제한시킨다는 단점이 있다(이승래 외, 2014).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으로는 Olley and Pakes(1996)에서 제시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Olley and Pakes(1996)는 내생성 문제가 우려되는 $\omega_{ri,t}$ 를 시간 불변의 변수로 가정하는 대신 생산성의 대리변수로서 투자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투자는 자본스톡과 관측 가능한 생산성 충격($\omega_{ri,t}$)의 함수를 가정한다.

$$i_{ri,t} = i(\omega_{ri,t}, k_{ri,t}) \quad (\text{식 4})$$

위 투자함수를 $\omega_{ri,t}$ 에 대한 역함수의 형태로 (식 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omega_{ri,t} = h(i_{ri,t}, k_{ri,t}), \quad \text{단 } h(\cdot) = i^{-1}(\cdot)$$

$$y_{ri,t} = \beta_1 l_{ri,t} + \beta_3 m_{ri,t} + \theta_{ri,t} + \mu_{ri,t}, \quad \text{단 } \theta_{ri,t} = \beta_0 + \beta_2 k_{ri,t} + h(i_{ri,t}, k_{ri,t}) \quad (\text{식 5})$$

(식 5)를 이용하여 노동(l) 및 자본(k)에 대한 불편추정량을 구할 수 있고 이들을 활용해서 총요소생산성은 $exp(y_{ri,t} - \hat{\beta}_1 l_{ri,t} - \hat{\beta}_2 k_{ri,t} - \hat{\beta}_3 m_{ri,t})$ 로 계산될 수 있다.

나. 지방이전투자자와 지역 생산성

Griliches(1979)가 제시한 지식생산함수에 의하면 기업의 생산성은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 외에 외부 지식 풀(pool of general knowledge)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지식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연구는 개별 기업이 이용 가능한 외부 지식 풀은 주변기업이 보유한 지식스톡의 함수임을 강조하였다¹¹⁾.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지식파급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투자기업은 투자지역내 토착 지역기업(이하 지역기업)과의 직·간접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기업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간재의 도입이나 품질 개선에 따른 최종생산재의 생산성 증가가 대표적인 경로이다(Javorcik, 2004). 또한 이전투자기업에 있던 근로자가 지역기업으로 이동 또는 스핀오프 창업 등을 통해 투자기업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근로자에 체화된 형태로 파급될 수도 있다(Greenaway et al, 2000; Keller and Yeaple, 2009; Blomstrom and Kokko, 1998 등). 그 외에도 투자기업의 유입에 따른 지역내 경쟁 증가는 지역기업의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Aitken and Harrison(1999)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입에 따른 시장잠식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도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식파급효과에 대해 수도권에서 대구경북지역으로 이전투자한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대구경북 내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Bloom et al.(2013) 및 김지수 외(2021)에서 제시한 모형을 토대로 r 지역내 지역기업 i 의 $t-t-1$ 기간 동안의 생산성 변화($\Delta A_{ri,t}$)에 대해 지방이전 투자기업이 미치는 지식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분석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Delta \ln(A_{ri,t}) = \alpha_0 - \alpha_1 \ln(A_{ri,t-1}) + \alpha_2 KNPool_{ri,t-1} + \alpha_3 S_{ri,t-1} + \alpha_4 X_{ri,t} + \alpha_5 \eta_i + \epsilon_{ri,t} \quad (\text{식 6})$$

종속변수인 $\Delta \ln(A_{ri,t})$ 는 비수도권 r 지역내 지역기업 i 의 $t-1$ 에서 t 기 사이의 생산성 변화율을 나타내며, $A_{ri,t-1}$ 은 $t-1$ 기의 생산성 수준을 의미한다. $S_{i,t-1}$ 은 지역기업 i 가 $t-1$ 기까지 축적한 기술지식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의 매년 연구개발투자비

11) Griliches(1979)에서는 외부기업의 지식을 빌린다(borrow)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에 대해 영구재고법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X_{ri,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GRDP를 사용하였다. η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변수인 $KNPool_{ri,t-1}$ 은 r지역내 지방이전 투자기업 $j=1,2,\dots,J$ 로부터 지역기업 i가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지식 풀(pool)을 나타내며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7)은 Griliches(1979)에서 제시한 외부 지식 풀을 분석 모형에 맞게 다시 표현한 것으로, 지역기업 i이 이용 가능한 외부 지식 풀은 지방이전 투자기업 j가 t-1까지 축적한 기술지식($S_{j,t-1}$)에 대해 j기업과 i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가중치(w_{ij})를 적용한 가중합으로 산출할 수 있다.

$$KNPool_{ri} = \sum_j w_{ij} S_{j,t} \quad (\text{식 7})$$

지역기업과 투자기업 간 가중치($w_{i,j}$)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였다. 먼저 기본이 되는 모형(baseline)으로 지리적 근접성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전투자기업과 지역기업이 동일 시도내에 속할 경우 가중치에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과급은 잦은 대면접촉 및 중간재·노동시장 등을 공유하는 동일 지역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일어남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지리적 근접성은 같은 시도 내 지역기업 전체에 대해 동일한 지식 풀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이전투자기업과 지역기업 간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적 근접성과 기술적 근접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산업적 근접성은 동일 시도내에 속한 이전투자기업과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두 기업이 동일 산업에 속할 경우 가중치에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기술적 근접성은 Jaffe(1986)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Jaffe(1986)에서는 개별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정보를 이용해 두 기업 간 기술 분야의 유사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두 기업 간 기술적 근접성으로 정의하였다¹²⁾. 이를 통해 해당 연구에서는 기술적 근접성이 높은 기업 간에 지식과급이 보다 활발함을 보인 바 있다.

(식 8)은 (식 6)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종속변수의 전기 값이 설명변수로 들어가

12) 지역기업 i와 이전투자기업 j간 기술적 근접성(p_{ij})은 아래와 같이 각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를 나타내는 기술벡터(f_i, f_j) 간 코사인유사도로 정의된다.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기업 간 기술적 근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p_{ij} = \frac{f_i f_j'}{(f_i f_i')^{1/2} (f_j f_j')^{1/2}} \in [0, 1]$$

있는 형태로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¹³⁾.

$$\ln(A_{ri,t}) = \alpha_0 + (1 - \alpha_1)\ln(A_{ri,t-1}) + \alpha_2 KNP_{ri,t-1} + \alpha_3 S_{ri,t-1} + \alpha_4 X_{ri,t} + \alpha_5 \eta_i + \epsilon_{ri,t} \quad (\text{식 8})$$

본 연구에서는 (식 8)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공하는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다만 개별 기업의 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종사자 수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한국평가데이터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인 2012년-2020년 동안 본사 주소지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을 지방이전 투자기업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 분석기간동안 주소지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을 지역기업으로 식별하였다.

2. 지방이전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

가. 생산성 추정 결과

기업 생산성 추정 결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투자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약 9.46으로 비수도권 내 토착 지역기업의 평균 생산성(9.41)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 이전을 하지 않은 수도권 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9.59로 지방이전기업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소재했던 기업들의 평균 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혁신환경이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기업들의 평균적인 기술수준이나 지식스톡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과 부합하는 결과이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에 정(+)의 지식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대구경북으로 이전투자한 기업들의 평균 생산성은 9.38로 지방이전 투자기업 평균(9.46)에 비해 소폭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방이전 투자기업들의 생산성이 이전 후에 소폭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전투자기업의 이전 후 3년 평균 생산성은 9.35로, 이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이전투자기업들이 대구경북 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전투자기업은 이전투자 후에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13) 분석모형 중 $X_{ri,t}$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GRDP를 사용하였다. η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업 고유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system GMM 추정으로 이를 고려하였다.

가지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경험하게 된다. 투자지역내에서 이러한 비용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후관리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10> 기업 생산성 추정 결과
 <기업 생산성 평균> <이전투자 전후 기업 생산성 변화>



자료 : 통계청 및 한국평가데이터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지방이전투자가 지역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먼저 전국을 대상으로 이전 투자기업이 동일 시도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이전 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 풀($KNPool_{r,i,t}$)이 동일 시도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1]열). 다만 흡수역량이 높은 지역기업에 한해 이전 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 풀은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2]열)¹⁴. 이는 김지수 외(2021)에서 제시한 결과와 유사한데, 해당 연구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지방투자가 무조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흡수역량을 보유한 지역기업에 한해 생산성 제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이전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지역기업의 충분한 흡수역량이 중요한 선결요건임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14)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산출한 흡수역량이 업종 평균이상인 지역기업 더미를 산출하고(혁신 지역기업더미), 이를 이용해 잠재적 지식 풀($KNPool_{r,i,t}$)과의 교차항을 산출하였다.

<표 5> 지방이전투자자과 지역기업의 생산성 변화 간 관계(전국) : 지리적 근접성

종속변수: 지역기업 생산성($\ln A_t$)	[1]	[2]
$\ln A_{(t-1)}$	0.347*** [0.036]	0.353*** [0.035]
$\ln \text{KNpool_지리적 근접성}_{(t-1)}$	-0.049 [0.076]	-0.069 [0.074]
혁신지역기업더미* $\ln \text{KNpool_지리적 근접성}_{(t-1)}$		0.011* [0.006]
$\ln S_{(t-1)}$	0.035*** [0.008]	0.020* [0.012]
관측치	7,648	7,648
기업수	1,514	1,514
AR(1)	0.000	0.000
AR(2)	0.404	0.457
Hansen J test. p value	0.444	0.507

주 : 1) []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은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연도더미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지면 제약상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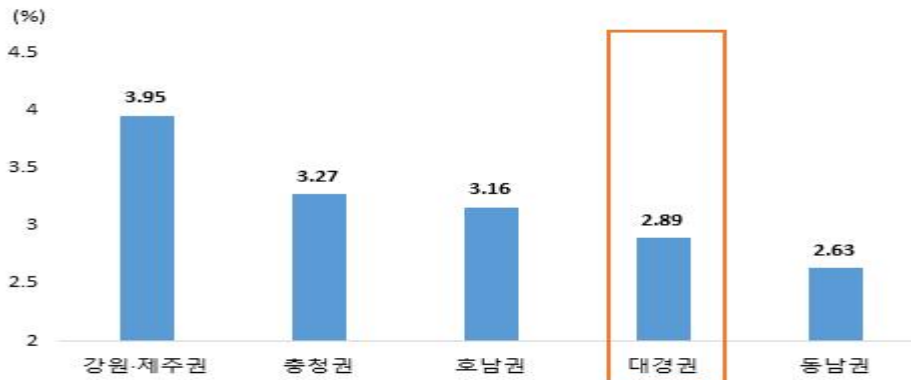
한편 <표 6>는 동일한 분석을 대구경북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전국 단위와는 달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방이전 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은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열). 이는 Aitken and Harrison(1999)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수도권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잠식과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은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열). 이러한 결과는 대구경북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치 못함을 시사하는데, 이에 대해 지역기업 흡수역량을 권역별로 살펴보았다. <그림 11>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산출한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을 권역별로 평균한 결과이다. 대경권의 경우 지역기업 평균 흡수역량은 약 2.9%로 비수도권 5개 권역 중 동남권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앞서 생산성 추정결과에서 대경권 지역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다른 지역내 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결국 대구경북지역의 흡수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내 이전투자는 상대적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지방이전투자와 지역기업의 생산성 변화 간 관계(대구경북지역) : 지리적 근접성

종속변수: 지역기업 생산성($\ln A_t$)	[1]	[2]
$\ln A_{(t-1)}$	0.320*** [0.065]	0.321*** [0.064]
$\ln \text{KNpool_지리적 근접성}_{(t-1)}$	-0.323** [0.141]	-0.314** [0.139]
혁신지역기업더미* $\ln \text{KNpool_지리적 근접성}_{(t-1)}$		0.003 [0.011]
$\ln S_{(t-1)}$	0.047** [0.020]	0.041 [0.028]
관측치	1,727	1,727
기업수	338	338
AR(1)	0.000	0.000
AR(2)	0.291	0.284
Hansen J test. p value	0.297	0.283

주 : 1) []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연도더미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지면 제약상 생략

<그림 11> 지역기업 흡수역량 현황



주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산출한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을 권역별 평균한 결과임

다음은 지리적 근접성에 더해 이전투자기업과 지역기업과의 산업적·기술적 근접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지식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지식파급은 결국 두 기업 간 직·간접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관계에 따라 지식파급효과의 정도와 방향성은 상이해질 수 있다. 먼저 <표 7>은 산업적 근접성을 적용한 잠재적 지식 풀에 대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은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이전투자기업이 보유한 지식 풀은 투자기업과 동일 산업에 속한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2]열). 특히 투자지역내에서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경영성과가 증가한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열)¹⁵⁾. 이러한 결과는 투자지역내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일수록 지역내에서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기업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은 앞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의 효과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열).

<표 7> 지방이전투자자와 지역기업의 생산성 변화 간 관계: 산업적 근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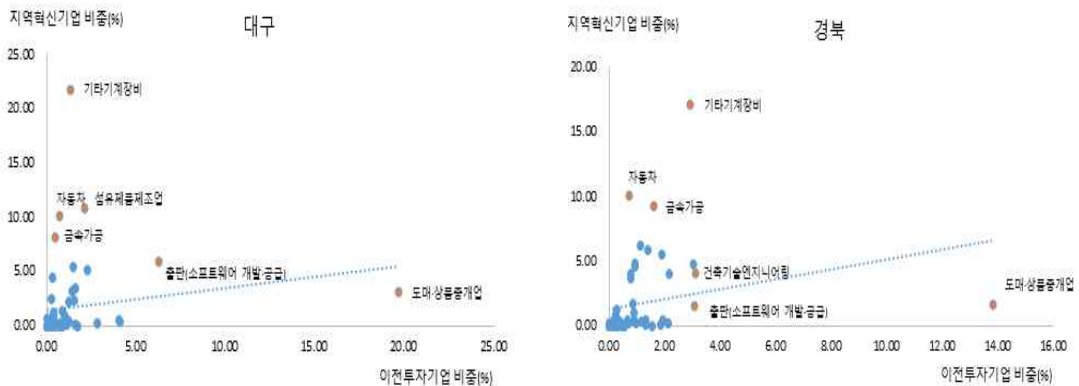
종속변수: 지역기업 생산성($\ln A_t$)	전국	대경관		
	[1]	[2]	[3]	[4]
$\ln A_{(t-1)}$	0.335*** [0.034]	0.316*** [0.066]	0.320*** [0.068]	0.318*** [0.068]
$\ln \text{KNpool_산업적 근접성}_{(t-1)}$	0.068** [0.031]	0.032 [0.030]		
$\ln \text{KNpool_산업적 근접성 및 경영성과 증가}_{(t-1)}$			-0.022** [0.010]	-0.026** [0.012]
$\text{혁신지역기업더미} * \ln \text{KNpool_산업적 근접성 및 경영성과 증가}_{(t-1)}$				0.016 [0.020]
$\ln S_{(t-1)}$	0.031*** [0.008]	0.049** [0.020]	0.048** [0.020]	0.038 [0.025]
관측치	7,648	1,727	1,727	1,727
기업수	1,514	338	338	338
AR(1)	0.000	0.000	0.000	0.000
AR(2)	0.441	0.292	0.321	0.324
Hansen J test. p value	0.715	0.314	0.259	0.283

주 : 1) []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연도더미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지면 제약상 생략

15) 지방투자기업 중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과의 산업적 근접성을 적용하여 별도의 잠재적 지식 풀(KNPool)을 만들고 이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구경북지역기업의 낮은 흡수역량 수준 외에도 산업적 미스매치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은 흡수역량이 높은 지역기업과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산업적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분석 결과 대구경북 지역기업 중 업종 평균 이상의 흡수역량을 보유한 지역기업은 주로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등 지역의 전통 주력제조업에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이전투자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전투자기업은 주로 도매·상품중개업이나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에서 투자가 활발한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흡수역량이 높은 지역기업은 해당 산업 내에서 지식파급을 발생시킬 만한 이전투자기업이 충분하지 않고, 이전투자가 활발한 산업 내에서는 투자기업의 지식을 이해하고 흡수할 만한 역량 있는 지역기업이 충분치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적 미스매치는 지방이전투자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혹은 완화시키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 지역혁신기업과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산업적 분포



주 : 세로축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산출한 흡수역량이 업종평균 이상인 지역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가로축은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냄

마지막으로 기술적 근접성을 적용한 잠재적 지식 풀에 대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8>은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기술 분야가 유사한 투자기업으로부터의 지식파급은 대구경북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파급과정에서 기술적 근접성을 강조한 Jaffe(198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투자지역내에서 연구개발투자나 고용이 활발한 투자기업일수록 지식파급효과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2]열~[3]열)¹⁶⁾¹⁷⁾. 이러한 결과는 투자기업이 이전지역내에서 연구개발이나 고용활동을

16) 지방투자기업 중 이전투자지역 내에서 각각 R&D 및 고용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과의 기술적 근접성을 적용하여 별도의 잠재적 지식 풀(KNPool)을 만들고 이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활발히 하는 과정에서 기술 분야가 유사한 지역기업과의 관계 형성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며 이는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지방이전투자와 지역기업의 생산성 변화 간 관계: 기술적 근접성

종속변수: 지역기업 생산성($\ln A_t$)	(1)	(2)	(3)
$\ln A_{(t-1)}$	0.306*** [0.065]	0.286*** [0.064]	0.300*** [0.068]
$\ln \text{KNpool_기술적근접성}_{(t-1)}$	0.167** [0.079]		
$\ln \text{KNpool_기술적근접성 및 R\&D증가}_{(t-1)}$		0.279*** [0.087]	
$\ln \text{KNpool_기술적근접성 및 고용증가}_{(t-1)}$			0.197*** [0.076]
$\ln S_{(t-1)}$	-0.002 [0.032]	-0.057 [0.036]	-0.034 [0.038]
관측치	1,727	1,727	1,727
기업수	338	338	338
AR(1)	0.000	0.000	0.000
AR(2)	0.281	0.26	0.288
Hansen J test. p value	0.205	0.273	0.176

주 : 1) []의 값은 강건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연도더미 및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지면 제약상 생략

17) 파급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추정계수를 표준화하였다. 표준화 계수는 1월~3월 각각에 대해 0.44, 0.73, 0.56으로, 지역기업과 기술적 근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전투자 후 지역내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한 투자 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대구경북지역의 이전투자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이전 투자기업의 주요 현황과 특징, 그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 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을 토대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전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전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안정적 착근 지원, 지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지역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 중심의 투자 방향성 정립, 지역내 안정적 투자환경의 조성을 제시하였다.

1. 사후 관리 통한 안정적 착근 지원

이전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전투자기업들에 대한 사후지원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원활한 자금확보와 인력수급의 지연, R&D 투자 저조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며, 재이전 기업이나 휴폐업 기업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투자기업이 해당 지역내에서 고용 및 생산활동 영위를 통해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투자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이 중요하며,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지원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김지수 외, 2021).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재이전기업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도출되었다. 통계적으로 대경권내 이전투자 기업은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대경권은 강원권에 이어 두 번째로 재이전기업 비중이 높았으며(16.6%), 재이전 기업의 대다수인 73.5%가 수도권으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내 안정적 착근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이전기업의 78%는 대경권에 투자 후 3년 내에 타 지역으로 재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 직후부터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역외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 투자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적합한 인력풀의 양성 및 매칭 지원 강화

대경권 내 지방투자기업의 역외이탈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후지원 정책 중의 하나로 투자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풀의 양성 및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전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활한 인력 공급은 이전투자 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꼽힌다. 선행연구에서도 대경권 투자기업들이 지방투자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에 적합한 지역내 고급 인력의 부족'(27.9%)과 '근로자 이탈 및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19.1%)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되어(김지수 외, 2022) 지방 이전투자 후 기업들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지역내 안정적 착근에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투자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이전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특성화고, 계약학과 등)이나, 지역기업 재직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전문기관 등이 협력하여 이전기업에 인재채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방안을 보다 체계화하고, 매칭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22년에 중소벤처기업 구인구직 지원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내에 일자리 매칭플랫폼을 설치하는 등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연계 정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한국형 퀵스타트¹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정책과 연계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3).

대구경북지역 이전투자 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의 신속한 공급과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이전투자 기업의 업종 및 기술적 특수성과 지역내 인재양성 역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이 협력하여 이전기업과 지역인재를 연계하는 '일자리 매칭플랫폼(예시)'을 구축하여 이전기업의 직무 및 기술에 특화된 매칭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나. 기업특성·업종별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대책 마련

이전투자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와 역내 기업활동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기업 특성별·업종별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대책으로서 첫째, 성장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이전기업의 기업활동 강화를 위한 재정 및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스케일업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이전투자기업 중 정보통신업의 혁신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혁신성이 우수한 업종에 대해 이전기업에서 요구하는 혁신인력의 육성 및 공급과 R&D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를 통해 이전기업이 보유한 신기술과 지식을 지역기업에 공유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기술특성화와 융복합화를 통해 이전기업의 스케일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유효할 것

18) 퀵스타트 프로그램(Quick Start Program)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196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2023년부터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추진을 시작하였다.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신규 기업 설립, 사업장 확장 등의 요인 발생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사전 모집과 교육·훈련까지 시킴으로써 투자기업에 적기에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전비중이 높은 비주력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산업의 주요 정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해 지역경제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역내 정착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부구매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기술지원, 자문 및 상담 등의 지원프로그램과 제도의 병행이 필요하다.

2. 지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강화

가.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이전투자 기업의 기업활동 위축 최소화

대구경북지역내 이전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자 기업들이 지역내 경제주체와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대구경북지역으로 새롭게 이전하는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지원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전투자 기업은 이전 직후 인력확보, 주변환경에의 적응, 투자지역의 정보구득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전 직후 기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기업이 이전투자하는 경우 타 경제주체와의 네트워크 단절이나 약화(Figueiredo et al., 2002; Knobens & Oerlemans, 2008)로 인한 부작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전 전후 투자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전지역내 경제주체와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한 이전기업-지역기업간 협력플랫폼 구축

이전투자 기업과 지역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시스템으로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을 구심점으로 하는 협력플랫폼의 구축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전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안정적인 인력의 공급처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이 이전투자 기업과 지역기업간 ‘협력플랫폼(가칭)’의 구심점이 되어 직·간접적인 기술협력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은 다수 추진되었으나, 이전지역내 네트워크가 부족한 이전투자기업을 배려한 협력플

랫폼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협력플랫폼’을 통해 R&D기획부터 이전기업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

이전투자를 통한 지식과급효과의 제고 및 투자기업의 네트워크 형성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역량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투자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을 이해하고, 흡수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이 이전투자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할 만한 수준의 흡수역량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경권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역기업의 흡수역량이 비수도권 내 하위 2위 수준으로 나타나 이전투자기업의 역외 유출을 야기하거나 지역내 충분한 과급효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전투자기업의 지역내 과급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여 이전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인하고, 충분한 흡수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기업과 이전기업간 과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이전기업과 상호보완성이 있는 지역기업의 기술수준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경권 이전기업의 상당수가 기구축된 협력관계로 인해 지역기업과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지역내 기업의 낮은 기술수준이 네트워크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김지수 외, 2021). 이러한 협력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식과급효과를 도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지역기업 및 산업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역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 중심의 투자 방향성 정립

지역적 차원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함에 있어 지역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 중심의 투자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대경권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 중심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전투자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흡수역량이 높은 분야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져야 지역산업에의 정(+)¹의 외부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경권내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경권내 흡수역량이 높은 산업분야에 대한 이전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투자 방향성의 설정이 전략

적이지 못하였음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역내 충분한 생산기반과 흡수역량을 보유한 주력제조업(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등)¹⁹⁾에 대한 이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투자 기업의 안정적 착근과 지역기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력산업과의 부합성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에서 설정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올 경우 이전기업과 지역자원간의 괴리로 인해 기업이전의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즉, 지역에 기반이 있는 기업이나 업종이 유치되어야 기업유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주요 투자 유치분야에 대한 전후방 산업 육성 또한 병행함으로써 지역내 기업이전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

5. 지역내 안정적 투자환경의 구축

대구경북지역으로 이전투자한 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함과 동시에 지역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이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투자환경은 입지환경, 자본, 인력,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앞서 기술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로 풍부한 자금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전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과 기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고, 이전투자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이전투자 지원펀드(가칭)’ 조성을 지역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펀드는 주로 (청년)창업이나 특정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자본형성을 통해 이전투자 기업의 생산 및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용펀드 구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이전기업을 위한 행·재정적 종합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술협력·사업화 관련 규제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인재채용, 근로자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 경영

19) 대경권의 주력산업은 전자산업(구미), 철강산업(포항), 기계 및 금속가공 산업으로 구성된다. 부가가치 기준(2019년)으로는 5대 주력산업이 꼽히는데, 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② 1차 금속 제조업, ③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④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 등 각종 기업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에 '규제혁신 전담부서'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이전기업과 지역내 경제주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인력간 자유로운 정보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정보교류의 장은 업종별로 협회 등을 통해 민간 위주로 형성되어 다양한 주체간의 교류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판교 창업존 사례는 입주기업과 VC, 유관기관 간 대내외 네트워킹을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이전기업과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가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와 기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다층적인 교류의 장 형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병태, 202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전략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병태, 2022. 대구 기술혁신역량 현황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지수 외, 2021. 지방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태현, 2009. 대덕R&D특구 Inno-Biz의 생태환경 경쟁력 분석: 서울디지털단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0(3) pp. 189-212.
- 박현정·최문종, 2021. 대구광역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2021~2025), 대구경북연구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변필성·변세일·이동우, 2009,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2023.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공고, 산업부 공고 제 2023-428호. 2023. 5. 9.
- 윤형호·김성준, 2006.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지역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4), 277-294.
- 이승래·김혁황·박지현·이준원, 2014. 국내 R&D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유진·한영숙, 2020. 기업의 입지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연구원
- 최재원·이문희·윤상현, 2021. 대구경북 산업 상생혁신 방향,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18. 대구경북 투자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 대구경북 기업의 생산성 현황 및 시사점.
- Aitken, B.J. and A.E. Harrison, 1999. "Do Domestic Firms Benefit from Direct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Venezuela", *American Economic Review*, 83(3), pp.605-618.
- Bloom, N., M. Schankerman, and J. Van Reenen, 2013. "Identifying Technology Spillovers and Product Market Rivalry", *Econometrica*, Vol. 40.
- Blomström, M., A. Kokko. & S. Globerman, 2001. The determinants of host country spillover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Inward Investment Technological Change and Growth*, Palgrave Macmillan, London.

- Driffield, N., 2004. "Regional Policy and Spillovers from FDI in the UK", *Annals of Regional Science*, 38: pp.579-594.
- Figueiredo, O., Guimaraes, P. & Woodward, D., 2002. Modeling industrial location decisions in US Counties. Universidade do Minho, working paper series 18.
- Greenaway, D., R. Upward, and P. Wrigh, 2000. "Sectoral Mobility in UK labour markets", mimeo, University of Nottingham.
- Griliches Zvi, 1979.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oductivity Growth",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0(1), pp.92-116.
- Jaffe A., 1986.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Spillovers of R &D: Evidence from Firms' Patents, Profits, and Market Valu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6.
- Javorcik, B.S., 2004.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In Search of Spillovers through Backward Linkag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pp.605-627
- Keller, W. and S. R Yeaple, 2009. "Multinational Enterprises, International Trade, and Productivity Growth : Firm level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1
- Knoben, J., Oerlemans, L.A.G., Rutten, R.P.J.H., 2008, The Effects of Spatial Mobility on the Performance of Firms, *Economic Geography*, 84(2), p.157-183.
- Krugman, P., 1994. "The myth of the East Asian miracle", *Foreign Affairs* 73(6) pp.28-44.
- Olley, S. and A. Pakes. 1996. "The Dynamics of Productiv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conometrica*, 64(6), pp.1263-1297.
- Young, A., 1995.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pp.641 - 680.